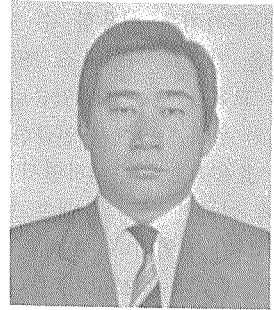


경영이념의 체질화와 전원 인재경영을 통한 혁신경영을



정 장 호 / 본회 비상근 이사
금성정보통신(주)사장

다시 한해를 보내고 임신년 새해를 맞으면서 전자공업인 여러분의 가정과 사내에 만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대내외 산업환경의 악화로 인해 우리 전자공업인 모두에게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주종 사업이던 교환기 시장이 이미 성숙되어 국내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업구조 조정과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신사업 전개 및 신제품 개발, 다품종 소량 품목의 생산과 조달,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응용, 해외진출과 세계화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체제 구축 등 우리의 5대 경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무궁화호 제작업체로 선정받음으로서 통신위성사업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회사 고유의 종합정보통신망인 블라닉(Vlanic) 전사망을 구축, 생활화함으로써 정보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구축하였고, 대용량 전전자교환

기 TDX-10 및 565M 광통신시스템 등 신제품의 성공적 개발로 세계화 품목의 확보에 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베트남에 우리 고유기종인 STAREXTD 전자교환기를 국내 최초로 수출·개통 완료하였고 루마니아와 소련에는 통신기기 합작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수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환경과 기업환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급속히 변화가고 있습니다. 중앙에 의해 계획통제보다는 개별조직의 자율과 조직간의 조화가 더 큰 성과를 낳고 있으며, 기본가치보다는 부가가치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노동·토지·자본보다는 지식·기술·정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우리 회사는 새해 1992년을 "혁신경영의 해"로 정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사업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개인에서 기업·국가에 이르는 사회

의 모든 곳에서 합리적인 경영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적 측면에서의 혁신 경영은 회사의 전 임직원이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창의력 발휘를 극대화하여 낡은 개념·체제·방법 등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적인 창조를 이루어내는 활동입니다. "혁신경영"을 위해 첫째 우리는 우리의 경영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체질화하고 생활화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리경영체제에서 전원인재경영체제로 전환코자 합니다. 관리경영이란 대량생산과 판매에 적합한 하드웨어적 경영체제로서 소수의 인재에 의해 관리·통제되나, 전원인재경영이란 기본가치가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적 경영체제로서 각자가 자기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원인재 경영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 회사는 모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자기 직무를 떠나서 인계교육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우리 모두

◆ 신년특집 / 壬申年 各界의 設計를 들어본다 ◆

가 사무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업구조 조정애 따른 교육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1991년에 이룩한 업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위성기술의 습득을 통한 무선기술의 개발은 물론 교환기의 지능망 기능 개발과 사설교환기 첨단부가기능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로, 해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코자 합니다. 우리회사는 작년에 이룩한 해외진출의 초석을 발판으로 전자교환기 현지생산 등 합작사업의 활기찬 추진과 신규시장 진출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세째로 우리는 블라닉의 상품화에 노력코자 합니다. 작년에 이미 구축한 블라닉 전사망에 충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보완함으로써 금년에는 이를 사업화하여 국내 기업들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기

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경영과제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해에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합의한 내용으로서 우리 서로의 약속인 동시에 고객, 주주, 정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전자공업인 모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으며, 다시한번 새해에도 전자공업인 여러분의 행운과 함께 전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